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타인 유형과 조망수용수준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인주, 한소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Abstract

COVID-19 팬데믹 발발 이후 특정 대상에 대한 공감 결여 및 혐오 증가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감의 주요 요소인 조망수용수준과 타인의 유형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모 일기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일기 작성자의 심리적 변인과 일기 내용의 조망수용수준이 태깅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군집분석을 통해 일기에 등장한 타인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각 타인 유형에 대하여 높은 조망수용과 낮은 조망수용에 해당하는 문장의 빈도를 파악하고 일기 내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의 유형에 따라 조망수용수준에 있어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관계가 가까운 타인, 소속감이 강한 집단의 타인, 힘든 상황에 처한 타인의 관점은 적절하게 추론하지만, 사회 및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타인의 관점은 적절히 추론하지 않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맥락 및 동기가 조망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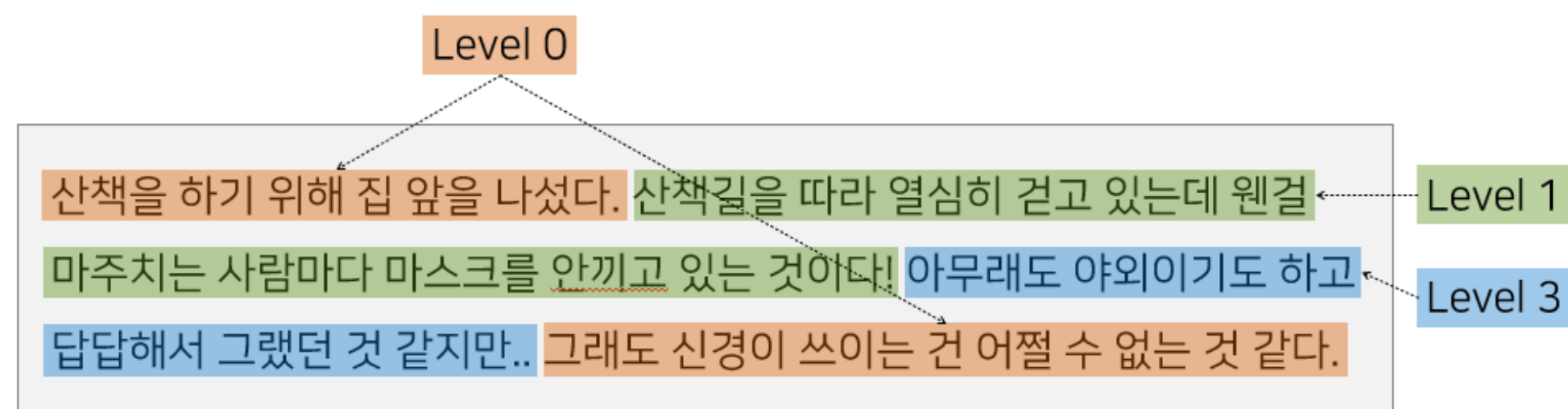
Introduction

- COVID-19 팬데믹 발발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으며(한국리서치, 2020),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공감(empathy)은 동기, 감정, 상황, 대상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함(Cuff et al., 2016; Devlin et al., 2014; Zaki, 2014). 이러한 공감의 맥락 및 동기적 요소는 COVID-19 팬데믹에서의 특정 대상에 대한 공감 결여 및 혐오 유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공감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상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짐.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복잡한 내적 상태를 무시하며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고 상대적으로 덜 공감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러한 경향성은 외집단이 위협적이거나 외집단이 자신과 같지 않다고 지각하였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남(Zaki, 2014)
- 공감은 타인의 정신상태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Cuff et al., 2016).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은 타인의 관점을 취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으로, 공감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임(Cuff et al., 2016)
-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감의 주요 요소인 조망수용수준과 타인의 유형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함

Dataset

감정일기 데이터셋 (Lee et al., 2021)

- 2020년 10월- 2021년 4월 동안 수집된 일기 데이터셋
- 5,800명의 한국인 참여자 (평균 36.12세 ($SD=11.85$, range=18-88), 여성 4377명(75%))
- 참여자 당 5개의 일기 작성 (총 29,000개의 일기)
- 참여자의 심리적 변인(외로움, 지각된 스트레스, 공감 능력 등)과 일기의 감정 또한 함께 수집되었으며, 일기 문장 별로 조망수용수준이 태깅(tagging)되어 있음
 - 조망수용수준
 - Level 0: 타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장
 - Level 1: 타인이 언급되었으나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론이 없는 문장
 - Level 2 (*낮은 조망수용*): 타인의 정신상태를 타인의 입장에서 추론하지 않은 문장
 - Level 3 (*높은 조망수용*): 타인의 정신상태를 타인의 입장에서 추론한 문장



[그림 1] 일기 문장 별 조망수용수준 태깅 예시

Analysis and Results

단계 1. 낮은 조망수용 문장과 높은 조망수용 문장에 나타난 타인 유형

- 타인 명사 추출
 -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추출된 각 토큰(token)의 품사 태그를 이용하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명사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명사를 추출. 추출된 명사 리스트를 보여 추가 필터링
 - 총 366개의 타인 명사 추출
- 타인 유형 추출
 - Word2Vec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값 기반 K-평균 군집분석
 - 전체 일기 데이터의 명사 unigram을 이용하여 skip-gram 기반 Word2Vec (Mikolov et al., 2013) 모델 학습
 - 학습된 워드 임베딩 값을 기반으로 15개 군집의 K-평균 군집분석 실시
 - 비슷한 군집 결합, 타인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군집 제외, 군집 내 토큰 필터링 등의 정제 처리 후 최종 7개의 타인 유형 추출 ([표 1] 참조)

[표 1] 타인 유형 및 유형 별 타인 명사

타인 유형	타인 명사
가족	남매, 시부모, 삼촌, 친척, 식구, 시어머니, 친정, 가족, 부모, 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형제, 이모,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사촌, 조카, 아빠, 아버님, 언니, 동생, 오빠, 누나, 남편, 배우자, 아내, 집사람, 와이프, 부부, 신랑, 아들, 엄마, 막내, 딸아이, 자녀, 둘째, 딸, 큰아이, 손자, 손주, 자식, 큰딸
친구	커플, 친구, 애인, 지인, 연인
직장 관련 타인	임원, 팀장, 과장, 사원, 부장, 팀원, 리더, 동료, 총무, 대표, 실장, 직원, 신입,차장, 상사, 사수, 선배, 후임, 후배, 조직
학교·학원 관련 타인	학우, 학부모, 대학생, 선생, 학생, 동기, 교수, 교사, 강사, 새내기
병원 관련 타인	접촉자, 의료진, 환자, 의사, 간호사, 보호자
일회성으로 만난 타인	운전자, 매니저, 여성, 점장, 사장, 일행, 진상, 임산부, 할아버지, 아저씨, 남성, 주인, 아줌마, 역무원, 점원, 아가씨, 아주머니, 손님, 종업원, 경찰, 민원인, 승객
특정 종교 단체	신천지, 기독교, 종교인, 교인, 목사, 단체

단계 2. 각 타인 유형에 대하여 조망수용수준 별 문장 빈도 및 문장 내용 분석

- 타인 유형별 높은 조망수용 문장과 높은 조망수용 문장 추출
 - 각 타인 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한 뒤, 추출된 문장 리스트를 보여 추가 필터링
- 조망수용수준별 문장 빈도

[표 2] 타인 유형별 낮은 조망수용 문장과 높은 조망수용 문장의 개수 및 비율

타인 유형	낮은 조망수용 문장	높은 조망수용 문장
가족	201 (18%)	888 (82%)
친구	116 (23%)	399 (77%)
직장 관련 타인	164 (52%)	151 (48%)
학교·학원 관련 타인	93 (32%)	201 (68%)
병원 관련 타인	24 (28%)	63 (72%)
일회성으로 만난 타인	437 (63%)	257 (37%)
특정 종교 단체	42 (81%)	10 (19%)

③ 조망수용수준 별 문장 내용

- 명사와 용언 unigram을 기반으로 빈도분석 진행

[표 3] 타인 유형 별 낮은 조망수용 문장과 높은 조망수용 문장의 최빈 10개 토큰

타인 유형	낮은 조망수용 문장	높은 조망수용 문장
가족	이해, 생각, 모르, 마음, 짜증, 본인, 모습, 아니, 아이, 못하	생각, 마음, 아이, 걱정, 이해, 힘들, 친구, 시간, 모습, 스트레스
친구	생각, 이해, 만나, 남자, 상황, 행동, 모르, 여행, 조심, 본인	생각, 마음, 남자, 이해, 기분, 힘들, 만나, 걱정, 상황, 여자

타인 유형	낮은 조망수용 문장	높은 조망수용 문장
직장 관련 타인	생각, 업무, 본인, 회사, 이해, 자신, 아니, 문제, 직장, 상황	생각, 이해, 상황, 마음, 회사, 재택 근무, 아니, 평소, 직장, 본인
학교·학원 관련 타인	생각, 수업, 이해, 학교, 모르, 과제, 비대면, 강의, 시험, 아니	수업, 생각, 학교, 아이, 이해, 입장, 힘들, 강의, 마음, 마스크
병원 관련 타인	병원, 모습, 얘기, 고생, 이해, 진상, 마음, 행동, 생각, 이기	생각, 고생, 병원, 마스크, 상황, 선 생, 입장, 힘들, 방역, 검사
일회성으로 만난 타인	마스크, 생각, 이해, 모르, 버스, 소 리, 상황, 모습, 행동, 아니	마스크, 생각, 마음, 이해, 모습, 입 장, 아니, 기분, 힘들, 모르
특정 종교 단체	종교, 교회, 생각, 모임, 개신교, 예 배, 이해, 뉴스, 감염, 집단	예배, 교회, 생각, 이해, 중요, 이름, 마음, 공동체, 무시, 대신

Conclusion

- 타인의 유형에 따라 조망수용수준 별 문장 빈도에 있어 다른 양상이 나타남
 - 가족, 친구, 학교·학원 관련 타인, 병원 관련 타인의 경우 높은 조망수용 문장의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일회성으로 만난 타인, 특정 종교 단체의 경우 낮은 조망수용 문장의 빈도가 더 높음. 직장 관련 타인의 경우 높은 조망수용 문장과 낮은 조망수용 문장의 빈도가 비슷함
 - 즉, 자신과 관계가 가까운 타인, 소속감이 강한 집단의 타인, 힘든 상황에 처한 타인의 관점은 적절히 추론하지만, 사회 및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타인의 관점은 적절히 추론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임
- 각 조망수용수준 문장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토큰이 다름
 - 높은 조망수용 문장의 경우, ‘기분’, ‘마음’, ‘입장’, ‘힘들’, ‘고생’, ‘걱정’이 빈번하게 등장한 반면, 낮은 조망수용 문장의 경우, ‘본인’, ‘모르’가 빈번하게 등장
 - 즉, 높은 조망수용 문장의 경우 타인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였고, 낮은 조망수용 문장의 경우 타인이 본인만 생각한다고 여기는 표현,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는 맥락 및 동기가 조망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함

References

- 한국리서치.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 70호).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221>.
- Cuff, B. M., Brown, S. J., Taylor, L., & Howat, D. J. (2016). Empathy: A review of the concept. *Emotion review*, 8(2), 144-153.
- Devlin, H. C., Zaki, J., Ong, D. C., & Gruber, J. (2014). Not as good as you think? Trait positive emot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self-reported empathy but decreased empathic performance. *PLoS one*, 9(10), e110
- Lee, Y. K., Lee, I., Park, J. E., Jung, Y., Kim, J., & Hahn, S. (2021). A Computational Approach to Measure Empathy and Theory-of-Mind from Written Texts. *arXiv preprint arXiv:2108.11810*.
- Mikolov, T., Sutskever, I., Chen, K., Corrado, G., & Dean, J. (2013).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arXiv preprint arXiv:1310.4546*.
- Zaki, J. (2014). Empathy: a motivated account.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608-470.